

環境的 要因이 公共圖書館 利用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 圖書館의 立地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spects  
for Public Library Use

김 수 영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Kim, Soo Young Kweon, Kie Won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도서관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강제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임의적인 또는 생활의 질과 관련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는 접근용이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입지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경험이 크게 작용하여 이용자의 이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이용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용자가 인지하는 접근용이성과 주변환경의 주관적 인지도를 측정하고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I.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내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 제기되는 문제는 몇개의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며, 만약 여러개의 시설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면 시설입지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이다.

도서관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강제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임의적인 또는 생활의 질과 관련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는 접근용이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입지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경험이 크게 작용하여 이용자의 이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되었다. 그래서 이용자의 접근용이성이나 도서관의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공공서비스시설보다 질적으로 저하된 위치에 입지를 선정하여 왔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입지결정에 대한 객

관적 기준과 최적입지를 탐색하는 방법의 결여는 공공도서관의 중복지역과 부재지역을 발생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평등성 문제를 야기해 왔다.

특히 도서관이 지역문화 중심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주변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서관 입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도서관 입지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도서관의 입지에 관한 이용자의 이용측면, 즉 도서관의 접근용이성·주변환경과 도서관 이용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간의 입지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용이성과 도서관의 주변환경에 따른 도서관 이용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새롭

계 도서관을 건립하고 이동할 때, 그리고 앞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하에서 미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입지선정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1.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의 입지는 도서관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소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의 접근용이성은 도서관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도서관의 주변환경은 도서관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 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20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중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19개의 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각 도서관들은 장서수, 설립연도, 열람 및 대출이용자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제한한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도서관은 장서수 및 제한조건이 비교대상이 되므로 먼저 1980년대에 설립된 도서관을 1차로 선정한 후, 열람 및 대출이용자수를 기준으로 3개의 군(群)으로 나눈다. 즉 1994년 1년동안 총이용자수가 20만명미만인 도서관, 20만~25만명인 도서관, 25만명이상인 도서관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이용자수가 20만~25만명인 도서관은 이용자수가 보통인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으며 이용자수가 25만명이상인 도서관(마포, 용산, 도봉, 강서도서관)은 이용이 높은 도서관으로 보고 A군 도서관으로, 20만명미만인 도서관(개포, 강동, 고덕, 구로도서관)은 이용이 낮은 도서관으로 보고 B군 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다.

### 1.4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연구대상인 8개의 공공도서관에 대해 도서관의 주변환경 및 접근성에 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를 작성한다.

둘째, 8개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도서관마다 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한다.

셋째, 질문지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서 및 이용자와 면담을 한다.

넷째, 회수된 질문지 중 유효한 질문지는 PC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통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빈도(frequency) 분석 및  $\chi^2$ -test 분석을 하며 유의수준은  $P < .05$ 로 한다.

## II. 도서관 입지기준과 적용

미국과 우리나라의 도서관 입지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설립실태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도서관 입지기준은 1)접근성이 양호해야 하며, 2)간선도로변에 위치하도록 하며, 3)상가지역 또는 근린지구 중심지에 입지하도록 하며, 4)최소한 20년동안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 및 지역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을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입지기준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 제88조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규모가 큰 도서관 또는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부에 입지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규모가 작은 도서관 또는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지구 또는 지역단위로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4)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2-4km 정도의 적절한 배치간격이 유지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도심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러나 도서관입지에 관한 이러한 규정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지가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부지확보 때문에 인구규모, 통행거리, 간선도로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입지선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지가가 높거나 부지확보가 곤란한 대도시에서는 도서관간의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교육청의 도서관건립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도서관의 적절한 배치가 곤란하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을 보면 서울시가 도서관을 건립한 뒤 서울시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내에 확보한 공공용지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법, 서울

시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건립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포, 고덕, 중계도서관은 택지개발 사업에 의한 기부채납에 의한 것이고 1991년에 개관한 동작도서관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과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건립 과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입지기준대로 도서관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도서관의 접근용이성

#### 3.1 교통편리성에 대한 이용자 인지

이용이 높은 집단과 이용이 낮은 집단간의 교통편리성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1> 교통편리성에 대한 이용자 인지

집 단	A 군(%)	B 군(%)
아주 편리하다	58 (32.0)	34 (20.0)
편리하다	32 (17.7)	22 (12.9)
보통이다	70 (38.7)	49 (28.8)
불편하다	15 ( 8.3)	28 (16.5)
아주 불편하다	6 ( 3.3)	37 (21.8)
전 체	181 (100.0)	170 (100.0)

$\chi^2 = 15.300$      $df = 4$      $p = .0041$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A군의 경우 49.7%(90명)가 편리하거나 아주 편리하다고 답한 반면, B군은 32.9%(56명)만이 편리하거나 아주 편리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A군의 경우 11.6%(21명)만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아주 불편하다고 답한 반면, B군의 경우 38.3%(65명)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아주 불편하다고 답하여 도서관의 교통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A군의 이용자가 B군 이용자보다 도서관을 이용할 때 교통이 더 편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로 볼 때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을 찾아 올 때 교통이라는 요소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입지조건에 교통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3.2 도서관건물의 가시성에 대한 이용자 인지

이용이 높은 집단과 이용이 낮은 집단간에 도서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인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A군의 경우 54.7%(99명)가, B군은 49.4%(84명)가 도서관을 처음 찾을 때 찾기쉽다고 답하였다. 두 집단 모두 유사한 비율을 보이므로 도서관 건물의 가시성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chi^2$ -test 결과  $p = .0594$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도서관의 가시성에 대한 집단별 인지

집 단	A 군(%)	B 군(%)
가시성		
매우 찾기쉽다	64 (35.4)	59 (34.7)
찾기쉽다	35 (19.3)	25 (14.7)
보통이다	56 (30.9)	59 (34.7)
찾기 어렵다	21 (11.6)	12 ( 7.1)
매우 찾기어렵다	5 ( 2.8)	15 ( 8.8)
전 체	181 (100.0)	170 (100.0)

$\chi^2 = 9.066$      $df = 4$      $p = .0594$

#### 3.3 도서관위치에 대한 이용자 인지

이용이 높은 집단과 이용이 낮은 집단간에 도서관의 위치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3> 도서관위치에 대한 이용자 인지

집 단	A 군(%)	B 군(%)
위 치		
매우 적절하다	38 (21.0)	12 ( 7.1)
적절하다	46 (25.4)	17 (10.0)
보통이다	64 (35.4)	70 (41.2)
부적절하다	21 (11.6)	25 (14.7)
매우 부적절하다	12 ( 6.6)	46 (27.1)
전 체	181 (100.0)	170 (100.0)

$\chi^2 = 47.118$      $df = 4$      $p = .0000$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A군의 경우 46.4%(84명)가 도서관이 지리적으로 적절하거나 매우 적절한 위치에 입지해있다고 답한 반면, B군은 17.1%(29명)만이 적절하거나 매우 적절하다고 답하여 A군과 B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A군의 경우 18.2%(33명)가 부적절하거나 매우 부적절한 위치라고 한 반면, B군의 경우 41.8%(71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하여 도서관의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A군이 B군보다 더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리적인 위치에 관한 이용자의 인지는 이용자가 단순히 도서관 건물의 위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 건물과 접근용이성, 주변환경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한 복합적인 인지라고 볼 수 있다.

#### IV. 도서관의 주변환경

##### 4.1 도서관 주변의 정숙정도

이용이 높은 집단과 이용이 낮은 집단간에 도서관 주변의 정숙정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A군의 경우 37.6%(68명)가 도서관 주변환경이 조용하다고 답한 반면, B군은 15.9%(27명)만이 조용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B군의 경우 55.9%(95명)가 시끄럽다고 답하여 도서관의 주변환경이 도서관의 입지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주변환경의 정숙정도가 이용자의 주관적 인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도서관의 입지조건에서 주변이 어수선하지 않고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도서관을 찾게 될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방음장치로 인해 도서관입지에 있어서 소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예산 및 정책상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음시설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도서관 입지조건에 소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4> 정숙정도에 대한 이용자 인지

정 수 \ 집 단	A 군(%)	B 군(%)
아주 조용하다	32 (17.7)	11 (6.5)
조용하다	36 (19.9)	16 (9.4)
보통이다	68 (37.6)	48 (28.2)
소란하다	33 (18.2)	45 (26.5)
아주 소란하다	12 (6.6)	50 (29.4)
전 체	181 (100.0)	170 (100.0)

$\chi^2 = 46.233$      $df = 4$      $p = .0000$

##### 4.2 도서관과 공공서비스시설과의 연계성

이용이 높은 집단과 이용이 낮은 집단간에 도서관 주변의 공공서비스시설과의 연계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A군과 B군 모두 보통이라는 답이 37.9%(13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이용을 많이하는 빈도는 A군이 24.3%(44명), B군은 23.5%(40명)이어서 도서관과 공공서비스시설과의 연계성은 그리 높지 않다. 즉, 이용자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전후에 주변의 공공서비스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서관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hi^2$ -test 결과  $p = .7592$ 로 도서관과 공공서비스시설과의 연계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도서관과 공공서비스시설과의 연계성

공공시설 \ 집 단	A 군(%)	B 군(%)
많이 이용한다	24 (13.3)	23 (13.5)
이용한다	20 (11.0)	17 (10.0)
보통이다	63 (34.8)	70 (41.2)
이용하지않는다	49 (27.1)	38 (22.4)
전혀 이용하지않는다	25 (13.8)	22 (12.9)
전 체	181 (100.0)	170 (100.0)

$\chi^2 = 1.8723$      $df = 4$      $p = .7592$

#### V. 결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이용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용자가 인지하는 접근용이성과 주변환경의 주관적 인지도를 측정하고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통편리성에 대해서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이용자는 교통이 편리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 (2) 도서관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이용자가 도서관 위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할 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 (3) 도서관 주변의 정숙정도에 대해서는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도서관 주변이 조용하고 안정된 경우에 이용자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 (4) 도서관의 접근용이성과 주변환경은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에서 주변환경이 도서관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